

# 열풍 시들자 방치되는 인형뽑기 기계들

한때 전 국민적 뽑기광풍을 몰고 왔던 ‘인형뽑기방’의 인기가 급감하면서 곳곳에 방치된 뽑기기계들이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22일 광주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형뽑기방은 모두 134곳(동구 13·서구 37·남구 26·북구 23·광산구 35곳)이다.

대부분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적자 때문에 폐업을 나가고 있고, 일부는 점포 임대기간이 남은 탓에 마지못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서 인형뽑기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6월부터인데, 그해 40개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74곳이 신규 등록됐다. 이처럼 인형뽑기방이 급증한 것은 소규모 비용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창업할 수 있는데다, 무인점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 폐업 속출에 길거리 곳곳 흉물...지자체들 처리 골머리

### 광주 134곳 운영 중...임대기간 남아 마지못해 운영도



법률’에 의거 시·군·구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인·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형뽑기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대부분의 영업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최신 유행에도 민감한 충장로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동구 충장로, 구시청 일대에서만 2016년 15곳, 2017년 11곳, 2018년 1곳 등 총 27곳이 영업해 왔으나,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곳(48.1%)이 폐업 신고를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장 임대료가 비싼 충장로 등 상업지역에서 매출 하락에 따

가계들은 기계 관리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지만, 실외형 영세업자의 기계 관리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앞 도로변 등에 1~2대씩 놓여있는 인형뽑기 기계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을 고장 난 채 방치돼 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 박지민(여·32)씨는 “동네 상가 앞 등에 인형뽑기 기계가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관리가 안 되는 듯 너무 지저분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기계들은 구청 등에서 정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은정 광주시 서구 공중위생 담당은 “노상에 설치된 기계들의 경우 개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철거를 위해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방치된 기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구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영업신고를 한 점포형 인형뽑기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조폭 몸 담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직 탈퇴 후배 폭행 혐의로 구속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조직을 탈퇴한 후배들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국제PI과 행동대원 A(3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3시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 앞에서 조직원 4명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후배 B(23)·C(23)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3주,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뒤 지난해 말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이들이 조직을 탈퇴할 당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우연히 마주치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모 고등학교 출신으로 재학 당시 전국대회 우승을 2차례나 일구며 프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 선수 시절 1군, 2군을 오갔으며 어깨 부상까지 겹쳐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제PI과에 들어가 행동대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영장 청구

### 검찰,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사 대표 김씨와 이사 박모(40)씨는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상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아파트 통장·관리소장

#### 주민 개인정보 유출 수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단지 통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 주민 7명은 아파트 단지 통장 A(63)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

다.

이들은 통장인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명부를 입수한 뒤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쏟아지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통장 A씨는 “분기마다 실시되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앞두고 부재자가 있을 경우를 우려해 명부를 요청해 받았다”면서 “명부에는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신입생 환영회서 성추행 대학병원 레지던트 재판에 넘겨



○...광주의 한 대학 병원 레지던트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학생 2명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정에 서야할 처지.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용구 부장검사)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한 주점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 도중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학생들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는데,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학교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돈

### 기차 타고 공범에 전달

#### 수거액 20대 여성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기차를 타고 대전과 서울지역까지 이동해 공범에게 전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지역 공범에게 모두 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여·2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

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금감원을 사칭해 속여 빼앗은 1억1300만원을 서울과 대전 등 공범에게 전달하고, 2%의 수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차 등을 타고 대전과 서울의 역 등에서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모바일 구인 앱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일간의 잠복·출장 수사를 거쳐 김씨를 검거하고, 2000여건의 비슷한 범죄 발생을 추가 조사해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 검찰, 금감원 등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거나,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물의 날’ 승촌·죽산보 해체 촉구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산강 살리기 캠페인을 열고 승촌·죽산보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살배기 아들 개 목줄 채워 학대 치사

### 20대 부부 항소심서 징역 15년씩 선고

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2)씨와 B(33)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이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다. 매일 밥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다.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가둬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kg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동안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향스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매가 : 8억 5천만◆

- ①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직거주 ▶매가 9억5천만
- ②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③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정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부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정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정가 1억8천8백 → 최저가 1억8천8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 3억4천4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 A.P.T·주택·공장·기타 등

-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9천3백 → 최저 1억7천
- 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⑧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⑨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①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②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③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 ①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②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 경매 가족을 모집합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